

# '나'라는 울타리를 넘는 방법

안기순 | 번역가

이 책의 공동 저자의 한 사람인 크레이그 킬버거는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노동 착취 소식에 분개하여 '어린이 자유해방(Kids Can Free the children)'이란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동시에 보건과 교육 등에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젊은이를 참여시키는 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해 왔고, 이러한 공로로 인해 노벨 평화상 후보 명단에 두 번 올랐다. 그가 설립한 '어린이 자유해방'은 아이들을 돕는 아이들의 최대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현재 35개국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첫 저서인 《어린이를 해방시키라(Free the Children)》는 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크리스토퍼 북 어워드(Christopher Book Award)'를 수상했다. 그의 형제인 마크 킬버거는 매년 수백만 명의 북미 젊은이를 대상으로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의 40세 미만 지도자 40명에 선정되었다.

이 책은 개인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어 실상 '우리'보다는 '나'에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현재의 자기계발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들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삶에서의 성공의 의미를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 정의한다. 저자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라고 독자에게 전한다. 그러려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놀라워서, 개인적인 성장, 만족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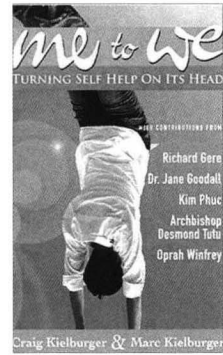
또한 이 책에는 심오한 삶의 교훈과 놀라운 열정으로 주위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네이팜탄의 폭발로 화상을 입고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거리를 달려가던 사진으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네이팜 소녀' 김푹(Kim Phuc),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의 투투 대주교, 미국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침팬지 연구의 선구자이자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매우 자기중심적이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은 화가, 식료품점의 계산대에서 노인에게 작지만 친절하고 행위를 베풀었던 점원 등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개인의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에 제시된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의 삶은 여태껏 꿈꿔왔던 삶과는 다를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해변에 별장을 갖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모래에 발을 묻을 수는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사회생활 자체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다.

이 책은 자녀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부모에게, 한창 성장해서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여태껏 '나'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를 보지 못했던 기성세대에게, 심지어 참신한 기업윤리가 필요한 회사에게도 한번쯤 읽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특히나 물질이 강조되고 경쟁이 심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성을 잃고 나만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

## English



원제 《나》에서 《우리》로 me to we

저자 크레이그 킬버거 Craig Kielburger & 마크 킬버거 Marc Kielburger

출판사 John Wiley and Sons

# 애들아, 미래를 위해 좋은 습관 들여 보자!

김지효 번역가

## Japanese



책명 《7가지 습관 초등학교 실천기》  
 저자 와타나베다카히사  
 출판사 김베어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의 '7가지 습관' 이 드디어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왔다.

지금까지 '7가지 습관' 은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지표를 잡아주고, 또 더욱 효과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어른들을 위해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7가지 습관' 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초등학교 교사가 있다. 그는 늘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길 염원하면서 정규수업 중에는 다루기 힘든 '미래를 위한 수업' 에 많은 공을 들여오고 있다.

그렇게 평소부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던 중, 교사는 우연히 '7가지 습관' 을 접하게 된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7가지 습관' 은 모든 사람이 아낌없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에 아이들이 빠져서야 되겠는가. 아이들이야말로 미래의 가정, 사회, 국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보배 아닌가. '7가지 습관' 이 지금까지의 성공철학과는 다르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은 교사는 이때부터 고민에 빠져든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과 사고방식을 길러 줄 수 있는 이 내용을 가르친다면 정말 좋을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러다 교사는 '7가지 습관' 을 다룬 책을 전부 숙독한 뒤, 책에 소개된 모든 습관을 중심으로 교재연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열의와 사명감 넘치는 한 교사의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7가지 습관' 과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책에 실린 아이들의 감상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이런 시도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7가지 습관을 충분히 이해했고, 스스로 봐도 가슴 뿌듯한 결과를 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에게는 어렵다는 주변의 목소리에 휩쓸리기보다 오히려 초등학생이라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교사편에서 주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인격형성과 원칙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이해 시키려고 많은 연구를 했다. 한 가지를 가르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했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했다. 또 이리저리 훑어져 있던

지식과 체험을 한 울타리 속에 들여놓고 구체적인 예나 알기 쉬운 예를 많이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나눌 수 있도록 마음 썼다.

교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 잘하기보다 스스로 해내는 적극적인 자세 갖추기를 요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수업은 매개로 부모와 자녀에게 공통된 목표를 안겨준 셈이다.

코비 박사는 직접 학교를 찾아와 교사와 아이들과의 만남을 갖고 이런 말을 남겼다. "남에게 신뢰받고 싶으면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약속은 꼭 지키자. 날마다 부모님께, 부탁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믿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는 코비 박사의 뜻이 담긴 수업내용 및 아이와 부모의 감상이 함께 실려 있어 아이들의 마음이 쑥 커가는 모습을 잘 읽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끝날 때마다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혹여 부모가 느끼지도 모를 심적 부담을 덜어줄 정도로 꼼꼼히 잘 정리되어 있다. 어른용 '7가지 습관' 을 실천하기가 훨씬 편해진 것 같다. **지**

# 쥘 베른, 백 년 뒤에 떠나는 상상의 모험

조정훈 번역가

《80일간의 세계일주》《해저 2만 마일》《15소년 표류기》... 이 정도의 목록만으로도 여러분은 금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프랑스 출신의 공상과학 소설가 쥘 베른이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며 그의 소설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지령'을 따라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위험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상상에 빠져 보았을 것이다. 그곳은 달나라일 수도 있고(《지구에서 달까지》), 깊은 바다 속일 수도 있고(《해저 2만 마일》), 땅 속 다른 세계일 수도 있고(《지저 여행》), 바다 가운데 떠있는 외딴 섬(《15소년 표류기》)일 수도 있다.

올해는 베른이 세상을 뜬 지 딱 백 년째 되는 해이다. 땅에 묻히고 백 년이 지나는 동안 베른은 잊혀지기는 커녕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력의 젖줄을 공급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유네스코가 선정한 '가장 많이 읽힌 책의 저자 10명'에 속할 정도로 그의 책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다. 프랑스의 현대 작가 르클레지오는 "쥘 베른이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당시 그리스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과 견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의 SF소설들, 스피버그의 영화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그 밖의 모든 장르의 상상과 판타지 등에서 쥘 베른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베른의 상상은 헛된 꿈을 좇은 공상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20세기의 과학은 쥘 베른의 꿈을 뒤쫓아 발달했다" 할 만치 탄탄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가 상상했던 세상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비행기와 로켓, 잠수함, 헬리콥터 등이 그의 상상력을 쫓아 후세에 만들어졌다. 유럽에 아직 전기라는 것이 잘 알려지기도 전 미래의 우주선과 잠수함에서 그리고 에너지, 환경, 통신, 교통 등에서 전기가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 예견했다. 그 밖에 탱크, TV와 네온사인 광고, 마천루, 원자폭탄, 잠수복, 에어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의 소설 곳곳에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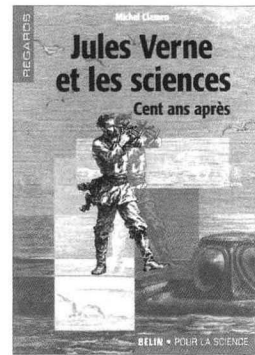
상상과 예지의 힘으로 100년 후 과학문명의 세계를 예언했던 이 천재 작가를 위해 그의 조국 프랑스는 올해를 '쥘 베른의 해'로 선포했다. 하루 정도 추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를 기리는 행사를 벌이는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베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3개의 도시인 낭트, 파리, 아미앵(쥘 베른은 낭트에서 태어났고 파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아미앵에서 말년을 보냈다)에서 그를 기리는 전시회, 토론회, 음악회와 대규모 행사들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그의 기일인 3월 24일을 전후하여 그가 내놓았던 공상과학 소설들이 일제히 복간된 것은 물론이고 문학, 과학,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주목을 끄는 책이 미셸 클라망(Michel Clamen)이 쓴 《쥘 베른과 과학-100년 후》(Jules Verne et les sciences-cent ans apres)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베른은 미래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 다양한 예언을 하고 있다. 그가 꾸었던 많은 꿈들이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졌지만 또 많은 부분이 역측이나 비현실적인 몽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과학자이기보다는 소설가였고 이론가이기 이전에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가 꿈꾸었던 미래 세계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무엇이 적중하였고 무엇이 잘못 예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재미있는 과학평전이다.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난 미국에서 무기개발의 명분을 잃은 '대포 클럽' 회원들이 포탄을 타고 달나라로 간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포탄을 타고 달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는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100여 년 뒤 포탄은 비슷한 생김새의 로켓으로 현실이 되었다. 《해저 2만 마일》에서 네모 선장이 타고 떠났던 잠수함 '노틸러스'는 그대로 1950년 미국이 만든 핵잠수함의 이름이 되었다. 어찌 보면 베른이 예견했다기보다는 그가 펼쳐 놓은 상상의 물줄기를 따라 과학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다. 쥘 베른의 상상력의 힘을 빌어 우리도 정확히 100년 뒤 세상을 한번 그려 보는 것은 어떨까? 📖

## French



저자 쥘 베른과 과학 백년 후 Jules Verne et les sciences cent ans apres  
 저자 미셸 클라망 Michel Clamen  
 출판사 Belin

# 안네, 그녀도 한 명의 인간이었다

김재혁 | 시인, 번역문학가, 고려대 독문과 교수

## German



책표 안네 프랑크, 마지막 일곱 달 Anne Frank, Die letzten sieben Monate  
저자 빌리 린트베어 Willy Lindwer  
출판사 Fischer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네의 일기》는 1944년 8월 1일자로 끝나 있다. 13살의 안네 프랑크가 생일 선물로 받은 예쁜 일기장에 1942년 6월 14일자로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 2년 넘게 계속되던 일기 쓰기가 멈춘 것은 일기의 주인인 안네가 아버지의 사무실 안쪽에 마련된 은신처에 숨어 지내다가 같은 해 8월 4일에 가족과 함께 나치의 비밀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안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거쳐 베르겐-벨젠 수용소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이 책 《안네 프랑크, 마지막 일곱 달》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안네 프랑크와 그녀의 가족과 가까이 지내던 일곱 명의 유대인 여인들은 이 책에서 그들이 겪은 전쟁 전의 삶과 박해, 체포, 강제수용소로의 이송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안네가 은신처에 숨어 지내기 전부터 안네를 알았으며 또 다른 몇몇은 안네가 강제수용소로 이송되는 도중에 또는 강제수용소 내에서 안네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1945년 중반까지 안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안네가 미처 쓰지 못한 《안네의 일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다.

안네의 일기에서 ‘한넬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안네의 소꿉친구 한나 E. 피크는 안네의 가족이 은신하기 전 함께 지냈던 시절을 증언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안네와 안네의 언니 마르고트를 알았던 블뢰메 에버스-엠덴은 베스터보르크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안네와 안네의 가족과 재회한다.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가족과 함께 강제수용소로 압송된 아니 브란데스-브릴레스-리위퍼는 베스터보르크 수용소에서 안네를 만나 안네가 1945년 3월 중순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에서 죽기 직전까지 병에 걸린 안네를 돌보아준다. “어느 날 안네는 이불을 뒤집어쓰고서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젠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옷을 걸치고 있으면 왠지 짐승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렵다며 옷가지를 몽땅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를 뒤 나는 안네 자매를 살펴보기

위해 가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은 영양실조와 장티푸스에 걸려 죽었다.

여기서 보고하고 있는 여자들은 모두 나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안네 프랑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녀와 똑같은 것을 체험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죽음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굴뚝을 통해 연기가 되어 내 머리 위로 떠올라 바람에 쓸려갔어요.” 강제수용소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그 여자들이 기억하는 안네 프랑크의 모습은 그녀의 일기에서와는 좀 다르다. 그녀는 더 이상 고집 세고 낙천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가 아니다. 수용소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심적으로 분열된 모습이다. 그들의 증언은 혹시 안네 프랑크가 상징적 인물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곤 하는 《안네의 일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안네 프랑크가 실존 인물임을 확인시켜준다. 저자 빌리 린트베어는 1988년에 이 작품 《안네 프랑크》로 국제 다큐멘터리 부분 에미상을 수상했다. [4]